전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속도

전라감영 인근 주민 · 상인단체 · 건물주 대상 설명회 개최

전주시가 서부신시가지 개발과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침체된 중앙동과 노송동, 풍남동 등 전주시 원도심에 활기를 불어넣을 전통문화 중심의 도시재생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주시는 27일 다가동 현장지원센터에서 전주부성을 중심으로 중앙동과 풍남동, 노송동 일원을 대상으로 한 '전주, 전통문화 중심의 도시재생' 사업 중 감영지구 거점강화를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시는 이날 참석한 지역주민들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 목적과 사업계획 필요성, 감영지구 거점강화를 위한 기본구상을 설명하고, 전라감영로 특성화 사업과 골방골목 재생사업, 등 마중물 사업 계획안 등을 소개했다.

전라감영과 풍남문, 남부시장, 다가동을 권역으로 한 감영지구는 국가지정 문화재인 풍남문을 비롯해 전라감영 복원 예정지 등 전통문화유산과 함께 근대유산과 일제강점기 건축물, 전통시장, 차이나거리와 웨딩거리 등 특색거리가 분포된 지역이다.

시는 전통문화 중심의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감영지구를 웨딩거리와 차이나거리, 남부시장의 연계강화를 통해 유동인구를 늘리고, 전라감영 복원 등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들의 유입을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추진중인 보행중심테마거리 조성과 전라감영 재창조, 남부시장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은 물론, 감영지구 도시재생을 위한 마중물사업과 주민제안사업들도 발굴·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전주 전통문화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은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옛 전주부성을 중심으로 한 1.37㎢를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사업비 20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주민설명회와 의견수렴, 공청회, 시의회 의견수렴, 중앙도시재생특별위원회(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올 연말 확정될 예정이다.

이후, 시는 오는 2020년 말까지 △감영지구 거점강화 사업 △공공기관 거점기구 거점강화 사업 △영화의 거리 확산사업 등 연계강화 사업 △주민역량 강화 등 지속가능성 확보사업을 주민들의 꾸준한 의견수렴을 거쳐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주민들이 사업 전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주민역량강화사업도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전통문화 중심의 도시재생을 통해 지역주민과 상인 등 사업 참여주체간의 유대관계가 형성돼 공동체도 회복시키고, 지역자원을 연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으로 침체된 원도심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을 27일 오전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옥시 현장조사가 열리는 서울 영등포구 옥시레킷벤키져 본사 앞에서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성실히 조사에 임해달라는 의미로 '진실'이라는 꽃말을 가진 폼폼소국과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전주시, 산성천 환경정비사업 준공 기념 탐방행사

전주시 동서학동 남고산성에서 전주천까지 흐르는 산성천이 후백제 문화유산의 숨결을 느끼며 걸을 수 있는 생태하천으로 탈바꿈한 가운데, 이를 기념하기 위한 탐방 행사가 열렸다.

전주시는 산성천 하천환경정비사업이 착공 4년 만에 준공된 것을 기념하고, 그간 공사에 협조해준 주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지난 26일 지역주민과 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성천 탐방행사를 가졌다.

산성천은 주택가가 밀집해 있고 하상경사가 심해 집중호우 발생 시 주민피해가 우려됐던 지역이다. 이에 시는 열악한 하천환경을 개선하고 인근 지역 주민들의 안전한 거주환경 제공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사업 필요성을 제기, 2012년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선정돼 추진하게 됐다.

재해예방을 위한 치수의 안정성 확보와 친환경 생태하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 이 사업에는 총사업비 124억원 투입, 총연장 2.3㎞ 석축호안을 자연석호안으로 축조하고 하천폭을 기존 6m에서 12m로 확장했다. 또, 교량(7개소)과 산책로(1.4㎞), 주민 편익시설(파고라, 운동기구 등) 등이 설치되 주민과 탐방객들이 걷기 좋은 쾌적한 하천으로 탈바꿈됐다. /김영재 기자

불법 사설경마장 운영 일당 검거

전주완산경찰서는 27일 불법 사설경마장을 운영한 혐의(마사회법 위반 등)로 이모(47)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시내 한 사무실에 컴퓨터 5대를 놓고 총 442회에 걸쳐 1450만원 상당의 사설 경마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실제 경마가 열리는 날 도박장을 개설하고,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무실 주변에 CCTV와 비상벨까지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용주 기자

여종업원 몰카 찍은 업주 집유

전주지법 형사5단독(정윤현 판사)는 27일 여종업원과 고객의 신체 특정 부위를 스마트폰을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초 전주시 완산구 자신이 운영하는 당구장에서 여종업원의 엉덩이와 다리를 스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이때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여종업원과 손님의 특정 부위를 모두 18차례에 걸쳐 스마트폰으로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종업원과 손님의 특정 부위를 촬영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용주 기자

전주보건소, 통합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지역아동센터 5곳 대상

전주시가 여름방학을 맞아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생활습관을 길러주기 위한 통합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경숙)는 오는 8월 10일까지 시영지역아동센터 등 관내 지역아동센터 5곳을 대상으로 아동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통합건강증진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통합건강증진프로그램은 신체적·정신적 발달이 가장 많이 이뤄지는 청소년기에 올바른 건강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강·음주예방·영양·흡연예방에 대한 교육과 체험 등으로 운영된다.

보건소 건강증진팀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을 대상으로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충치 및 잇몸병 유무 등의 구강위생 상태를 확인한 후 치아 홈메우기와 불소도포, 스케일링 등 예방진료와 충치치료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대상자 모두에게 칫솔과 치약 등 구강위생용품 제공하고, 개인별 맞춤형 칫솔질 교습을 통해 스스로 올바른 구강관리가 가능하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건소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건강한 식생활 지침 및 식품구성, 자전거를 이용한 영양교육, 음주가 인체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음주거절방법, 가상 음주체험 등의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금연예방을 위한 △담배가 치아에 미치는 영향 △평생금연선서 △간접흡연바로알기 등의 교육도 운영된다. /김영재 기자

'전주 첫 마중길' 조성사업
시민희망나무 헌수운동 줄이어

현재 4316만원 모금

전주시가 전주역 앞 대로에 전주의 첫인상을 바꿀 '전주 첫 마중길'을 조성하는 가운데, 명품가로 숲 조성을 위한 시민희망나무 헌수운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줄을 있고 있다. 27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5월 전주 첫 마중길 조성을 위한 시민희망나무 헌수운동 1호 참여기업을 시작으로 기업과 단체, 일반 시민들의 기부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 강선규 본부장과 직원들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걷기 편한 보행자도로를 만드는 전주 첫 마중길 조성에 뜻을 함께하고, 시민헌수운동 성금으로 800만원을 기부했다. 이들은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건강생활실천의 습관화 유도를 위한 건강생활 실천상담실 운영, 금연·절주 및 나의 허리둘레알기, 건강수치 기억하기 캠페인 등 다양한 건강증진 활동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민희망나무 헌수운동에는 전라북도 목욕협회와 세계태권도 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사무처장 박병익씨 가족일동이 각각 기부했으며, 첫 마중길에 위치한 상가 중에서는 역전참한의원 서알란 원장이 처음으로 200만원을 전달했다.

이처럼 시민희망나무 헌수운동 참여가 이어지면서 현재까지 후원에 참여한 개인과 기업, 단체 등은 모두 20곳으로, 총 3316만원을 기탁했다.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사에서 1000만원을 시민희망나무 헌수를 위해 기탁기로 약정함에 따라, 현재까지 모금된 금액은 총 4,316만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 시는 하루 평균 7000명 이상의 관광객이 이용하는 전주역 앞 백제대로를 기존 차량위주의 도로에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걷고 머물 수 있는 곳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현재 편도 4차선으로 돼있는 차로를 3차선으로 줄이고, 중앙에 폭 15~20m의 광장에 느티나무 250그루를 심어 사람이 몰리는 이벤트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광장에 조성되는 명품숲은 출생·입학·결혼·취업 등을 기념하는 가족 기념식수와 기관, 단체, 기업들의 뜻있는 이야기를 담아내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헌수운동을 통해 도시공간의 주인인 시민들이 함께 심고, 가꾸고, 즐기는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시는 내년에 열리는 FIFA U-20 월드컵의 성공 개최와 개막전 손님맞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전주시의회와 협력해 추경예산 11억원을 추가 확보하는 등 총 사업비 60억원 중 37억원을 확보한 상태로, 사업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시는 헌수운동 참여자들과 함께하는 수목식재 행사도 가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자연을 사랑하고 전주시를 아끼는 후원자가 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 전주 첫 마중길이 시민의 힘으로 생명의 숲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재 기자